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조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33호【루계 제25642호】주제106(2017)년 5월 13일(토요일)

당의 령도 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인민무력성 기공구, 마감건재품 및 과학기술성과 전시회장을 돌아보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파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인민무력성 기공구, 마감건
재품 및 과학기술성과전시
회장을 돌아보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
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
동지와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인민무력상인 육군
대장 박영식동지, 인민무력
성 부상인 육군중장 김정판
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주체
104(2015)년 2월 기공구



있다고, 건설설비들과 자재
들을 다른 나라에서 사다
쓸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
식으로 창안제작하기 위한
사업을 즐기차게 일교나가
야 한다고 하시면서 사회
에서도 인민군인들의
투쟁기풍, 일분세를 따라
배우도록 할데 대하여 강조
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건설의 대번영기를 더욱
빛내여나가는데서 이번 전
시회가 매우 중요한 계기
로 된다고 하시면서 자력
갱생의 기지높이 대충적기
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려
더 많은 기공구들과 마감
건재들을 창안제작할데 대
한 문제, 설비들의 표준
화, 규격화를 실현할데 대
한 문제, 가구들을 경량화

전시회장을 돌아보시면서 제시하신 파일
을 높이 받들고 인민군대에서는 자력
강의 힘으로 수많은 기공구들과 마감건
재들을 창안제작도입하여 그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
판결을 위한 사회주의대건설전투마다에
서 눈부신 성과들을 다발적으로, 편발적
으로 이룩하였다.

이번 전시회에는 당의 주체적건축미
학사상을 높이 받들고 선 편리성, 선
미학성의 원칙이 구현된 만년대계의
변형기에 펼쳐진 류다른 풍경이라고,

기념비적건축물을 최상의 수준에서
최대의 속도로 일떠세우기 위한 투정을
벌리는 과정에 인민군대안의 건설부대,
전재품 생산단위들에서 창안제작한 550종
에 13만 1,620점의 각종 기공구, 마감
건재품들과 530여점의 과학기술성과자
료들이 전시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전시품들을 보시면서 2년전의 기공구
전시회보다 많이 달라졌다고, 건설의
구체적으로 보아주시면서 그들의

건설부문에서 대혁명이 일어났다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당의 대건설구상을 앞장에서 밟들어
려명거리건설을 비롯한 주요전구마다
에서 힘있는 부대, 기술있는 부대의
위용을 남김없이 펼친 인민군군인들의
불리는 애국충정과 재능이 어려있는
건설장비들과 건재품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보아주시면서 그들의

전시회에 전시된 창안품들은 우리
사람들의 체질에 맞고 다루기 편리하게
만들어졌다. 전재 및 전구류들과 가구
비품들의 가지수도 많고 질도 높다고

하시면서 당의 의도대로 전재품의 국산
화, 다양화, 대종화, 다색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대중
의 힘과 지혜는 무궁무진하며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다 만들어낼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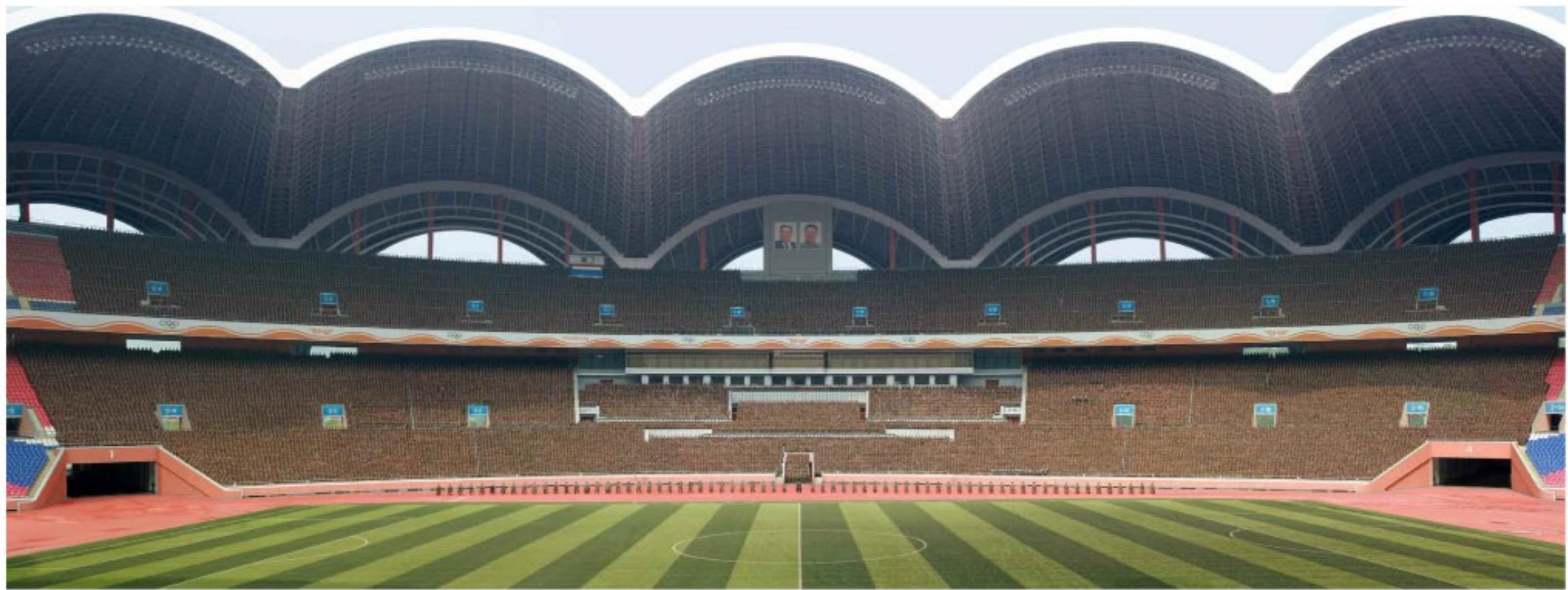
할데 대한 문제 등 건설부문에서 나서
는 구체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인민
군군인들이 뼈명거리건설실화를 창조한
그 기세, 그 기백으로 자력자강의 정신
과 과학기술의 위력을 높이 발휘하여 만
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총동격전에서 사
회주의조선의 새로운 건설기적, 건설속
도를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건설부문 열성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참가하였다.

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활영장에 나오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환호성이 러저울라 하늘땅을 진감 조선인민군 건설부문 열성자들과 함께 하였다.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위업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 앞장에 인민군대를 내세우시고 정역적인 동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 영도로 이 땅우에 전설의 대번영기, 무력상인 유크군대장 박영식 동지, 인민 자력자강의 만리마시대를 열어나가시는 무력상 부상인 유크군중장 김정관동지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최대의 영예 비롯한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이 여기에 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열광적

으로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당시 관찰전, 당정책옹위전의 제일기수, 둘격대답게 사회주의대건설의 격전장마다에서 군인정신, 군인본때, 군인기질을 넘김없이 발휘하여 영웅조선의 건설신화들을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장조해나가고 있는 조선인민군 건설부문 열성자들을 열렬히 축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그들이 당의 농대한 구상과 전투적 호소를 받들고 주체건축예술의 미래와 사회주의문명의 높이를 보여주는 기념비적

창조물들을 단숨에의 공격정신으로

수많이 일떠세울으로써 우리를 압살 하려는 원쑤들에게 철퇴를 안기고 사회주의조선의 무궁무진한 국력과 발전 잠재력을, 강용한 기상을 민천하에 떨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건설부문 열성자들이 앞으로도 백두산혁명강군의 자랑스러운 승리 전통, 애국전통을 굳건히 이어 사회주의 대건설전투에서 불라는 충정과 대중적 영웅주의를 더 높이 발휘하여 조국번영의 새시대, 최후승리의 진격로를 앞장

에서 열어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대해 같은 사랑과 믿음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만리마속도창조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21세기 건설의 대기적들을 떤 이어 창조함으로써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전략적 목표를 앞당겨 실현하는데 적극 이바지 해나갈 불타는 결의에 충만되어있었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618건설돌격대를 성심성의로 지원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618건설돌격대를 적극 지원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당의 숭고한 뜻을 높이 달고 돌격대에 편성한 대성구역련의봉사사업소로 퉁자 김해영, 김명순, 대성구역인민위원회 산하단위로동자, 퉁자류영희, 평천식료봉장로동자 김은복, 전자공업성 정보기술개발사 연구사 리정혁, 평천구역종합식당로동자 유례화, 평안남도지방공업관리국교통사 김금향은 고산평을 대규모 과밀생산기지로 전면시키기 위해 애국의 구슬땀을 바치면서 지원사업에도 앞장서고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유훈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유태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두정에 맹쳐나선 건설자들을 둘는것을 마땅한 본분으로 여기고 체신성 산하단위 정보통신기술원 최정혁은 216사단 618건설돌격대원들의 생활에 뜨거운 혈육의 정을 기울였다.

내각사무국 산하단위 최기혁은 산지연군을 이 세상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본보기군, 표준군, 모범군으로 꾸려기 위해 적극 헌신하고있는 건설자들을 몸심 향으로 도와주었다. 산지연지구에서부터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의 만세소리가 더 높이 울려퍼지며 함께 대한 당의 숭고한 뜻을 짐작깊이 새겨안은 보건성 대외보건협조사 교원 자영심은 가정에서 마련한 많은 후방

물자를 건설장에 보내주는 소행을 발휘하였다.

성간군기내부업축산관리위원회 회계원 최정실은 배두대지를 사회주의선경으로 번모시키기 위한 두정에 순직한 마음을 바쳐 잘 일념하고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을 퍼트리고있는 투격대원들에게 온갖 치성을 다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크나큰 격정속에 받아안은 근로자들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평판을 위한 전민총돌격전에서 자력자강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사회주의 강국건설에 참답게 이바지해갈 열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여러 나라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발행식 진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의 영광스러운 루팡사를 궁지높이 풍화하고 사회

제7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태양일, 세계자주화위업을 이루

에 즐음하여 만마 미트 라르모 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태양일, 세계자주화위업을 이루

에 즐음하여 에밀트 나쓰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태양일, 세계자주화위업을 이루

에 즐음하여 에밀트 나쓰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2일부터 7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인터넷신문 『스테이츠맨』은 김정은동지께서 장제도와 무도의 방어대들을 시찰하시고 군인들의 전투동원준비실태에 대한족을 표시하시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장제도방어대의 감사에서 언행도를 바라보시며 최근 적경을 보고 받으신 북조선령도자께서는 새로 주민 바다물정제기실을 둘로 보시었으며 군인들, 군인카족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한 적대 상물화백 타격계획을 표해 긴급히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포병집단이 고도의 객동상태를 유지하고있다가 일단 명령이 내리면 적들의 대응을 끝질려버려야 한다고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무도 영웅방어대도 시찰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섬방 어대들에 새로 주민 바다물정제기실을 둘로 보시었으며 군인들, 군인카족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민주통일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네트워크제지들도 우와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기네통신, 네필신문 『아트판』과 주체사상 및 선군정치 연구 네랄기자협회, 네랄조선 전선협회 인터네트워크제지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영웅적 조선인민 군중 활동 대회에서 영웅적 조선인민군 창건 85돐 경축 조선인민군 군중 활동 타격시위를 보신 소식을 전하였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군사적 역제력을 배방으로 강화해나가도록 하였다. 이것은 커다란 혁사적 의지를 가지는 사변으로서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조국통일, 세계자주화위업을 실현하기 위해 두정하는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에게 독자들이 굳은 지지와 련대성을

갖은 칭송의 표현이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군사적 역제력을 배방으로 강화해나가도록 하였다. 그이를 모시고 김일성주석의 칭송 105돐과 김정일령도자 위업 실현에 특별한 업적을 표명하는 행사를 2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김정은 태양을 려신 김정은동지에 대한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무한한 신뢰심과 열화

조선의 당과 군대와 인민은

미제를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책동을 파악히 저지시키며 승리만을 면치고있다. 결출한 명도자께서 조선의 통일은 반드시 이룩될 것이다. 조선의 미래는 휘황찬란하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만세!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만세!

스위스단체들 공동성명 발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군사적 역제력을 배방으로 강화해나가도록 하였다. 그이를 모시고 김일성주석의 칭송 105돐과 김정일령도자 위업 실현에 특별한 업적을 표명하는 행사를 2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김정은 태양을 려신 김정은동지에 대한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무한한 신뢰심과 열화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어머니당의 품이 있어 《세상에 부럽없어라》의 노래소리 영원하리

눈부신 기적 속에 솟아난 인민의 보금자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모신 감각파 환희의 예아래 5월의 하늘가에 꽂없이 울려펴지며 잊을수 없는 그날로부터 어느덧 한해가 흘렀다.

1년! 딜로는 다 표현할수 없고 글로써도 다 전할수 없는 적중의 한해이다.

창구한 역사의 흐름속에서 한 해는 순간이며 할수 있지만 지난 나날은 우리 대국과 인민에게 있어서 몇십년과 맞먹는 영웅적성과 거창한 창조의 한해였으며 남들같으면 언제가도 깨닫지 못하고 체험해보지 못할 거대한 역사적성과를 다시금 빼어 세길 잊을수 없는 나날이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파 같이 말하십니다.

「우리 당은 앞으로도 무한한 확력과 활성화 절정으로 인민을 위해 정을 다하는 혁신의 달, 변함없는 어머니당으로 자기의 무겁고도 성스러운 사명을 다해나갈것이며 어떤 친지들과가 덕처두로 인민들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자기의 본분에 무한히 충실했 것입니다.」

역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에서 이 맹세에 헌신되었던 그 날과 날을 더듬어서 때 너무도 우리 편에 익은 말입니다.

혁명연예과 북부전역!

전역은 하나의 큰 철두나 전쟁을 의미한다. 총포들이 비발치고 누가 누구를 하는 사생

정단의 치열한 싸움을 가리키는

이 말이 뜻깊은 한해를 끄는

보는 이 시작 우려 천만군민의

가슴을 그로 세워 백봉을 말그대

로 전후후루. 전대미문의 것

였다.

뜻깊은 2016년의 계절에는 대승리를 눈앞에 바라보았던

때에 조국의 북변 두단강연

안에서 태방후 기상관련설

은 미체와 그 주종세력

들과의 치열한 대결전이라고,

혁명기력을 훌매해온 반도

일대에 유통으로서 우리의 힘,

세계가 알지 못하고 일수도 없는

주제조선의 철승불폐의 전통을

다시금 파악하고 열렬히 호소

하시던 절세위인의 우렁우렁한 그 용성이.

그렇게 시작된 싸움이었다.

아직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조선의 이 선언, 이 담력이 어떻게 실천으로 이어지겠는지 상상 할수 없었다.

우리 역시 려명기력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해도 끝되

는 사이에 혼속적으로 치르어야 했던 려명연예과 북부전역, 그

것은 어떤 힘들이었어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싸움이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답고 궁지

을 삼을 위한 창조의 싸움이었다.

여기에 그에 당시 우리 조국과 혁명의 앞길을 가로막아나선

얼마운 도전에 대하여 말해주는 한마디의 글이 있다.

『유엔 역사 70여년의 그 어느 갈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야만적인 계제소동과 침략과 전쟁에서 악명을 떨쳐온 《6대전략자산》이 광그리 동원될 학생

생소동이 우리 삶의 공간을 완전히 칠식시키고 우리 삶의 지

면마저 희생으로 친밀화하며 우리의

운명인 사회주의제도를 말살하

는데로 총집중되었다.』

우리에 대한 압박과 위협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

나 선조선의 첫 수소원의

창업한 되성에 짚집한 원쑤들

의 제제와 불세력은 말그대

로 전후후루. 전대미문의 것

였다.

뜻깊은 2016년의 계절에는 대승리를 눈앞에 바라보았던

때에 조국의 북변 두단강연

안에서 태방후 기상관련설

은 미체와 그 주종세력

들과의 치열한 대결전이라고,

혁명기력을 훌매해온 반도

일대에 유통으로서 우리의 힘,

세계가 알지 못하고 일수도 없는

주제조선의 철승불폐의 전통을

다시금 불어온다.

뜻깊은 2016년의 계절에는 대승리를 눈앞에 바라보았던

때에 조국의 북변 두단강연

안에서 태방후 기상관련설

은 미체와 그 주종세력

들과의 치열한 대결전이라고,

혁명기력을 훌매해온 반도

일대에 유통으로서 우리의 힘,

세계가 알지 못하고 일수도 없는

주제조선의 철승불폐의 전통을

다시금 불어온다.

뜻깊은 2016년의 계절에는 대승리를 눈앞에 바라보았던

때에 조국의 북변 두단강연

안에서 태방후 기상관련설

은 미체와 그 주종세력

들과의 치열한 대결전이라고,

혁명기력을 훌매해온 반도

일대에 유통으로서 우리의 힘,

세계가 알지 못하고 일수도 없는

주제조선의 철승불폐의 전통을

다시금 불어온다.

뜻깊은 2016년의 계절에는 대승리를 눈앞에 바라보았던

때에 조국의 북변 두단강연

안에서 태방후 기상관련설

은 미체와 그 주종세력

들과의 치열한 대결전이라고,

혁명기력을 훌매해온 반도

일대에 유통으로서 우리의 힘,

세계가 알지 못하고 일수도 없는

주제조선의 철승불폐의 전통을

다시금 불어온다.

뜻깊은 2016년의 계절에는 대승리를 눈앞에 바라보았던

때에 조국의 북변 두단강연

안에서 태방후 기상관련설

은 미체와 그 주종세력

들과의 치열한 대결전이라고,

혁명기력을 훌매해온 반도

일대에 유통으로서 우리의 힘,

세계가 알지 못하고 일수도 없는

주제조선의 철승불폐의 전통을

다시금 불어온다.

뜻깊은 2016년의 계절에는 대승리를 눈앞에 바라보았던

때에 조국의 북변 두단강연

안에서 태방후 기상관련설

은 미체와 그 주종세력

들과의 치열한 대결전이라고,

혁명기력을 훌매해온 반도

일대에 유통으로서 우리의 힘,

세계가 알지 못하고 일수도 없는

주제조선의 철승불폐의 전통을

다시금 불어온다.

뜻깊은 2016년의 계절에는 대승리를 눈앞에 바라보았던

때에 조국의 북변 두단강연

안에서 태방후 기상관련설

은 미체와 그 주종세력

들과의 치열한 대결전이라고,

혁명기력을 훌매해온 반도

일대에 유통으로서 우리의 힘,

세계가 알지 못하고 일수도 없는

주제조선의 철승불폐의 전통을

다시금 불어온다.

뜻깊은 2016년의 계절에는 대승리를 눈앞에 바라보았던

때에 조국의 북변 두단강연

안에서 태방후 기상관련설

은 미체와 그 주종세력

들과의 치열한 대결전이라고,

혁명기력을 훌매해온 반도

일대에 유통으로서 우리의 힘,

세계가 알지 못하고 일수도 없는

주제조선의 철승불폐의 전통을

다시금 불어온다.

뜻깊은 2016년의 계절에는 대승리를 눈앞에 바라보았던

때에 조국의 북변 두단강연

안에서 태방후 기상관련설

은 미체와 그 주종세력

들과의 치열한 대결전이라고,

혁명기력을 훌매해온 반도

일대에 유통으로서 우리의 힘,

세계가 알지 못하고 일수도 없는

주제조선의 철승불폐의 전통을

다시금 불어온다.

뜻깊은 2016년의 계절에는 대승리를 눈앞에 바라보았던

때에 조국의 북변 두단강연

안에서 태방후 기상관련설

은 미체와 그 주종세력

들과의 치열한 대결전이라고,

혁명기력을 훌매해온 반도

일대에 유통으로서 우리의 힘,

세계가 알지 못하고 일수도 없는

주제조선의 철승불폐의 전통을

다시금 불어온다.

뜻깊은 2016년의 계절에는 대승리를 눈앞에 바라보았던

때에 조국의 북변 두단강연

안에서 태방후 기상관련설

은 미체와 그 주종세력

들과의 치열한 대결전이라고,

